

[11~1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로 같지 않은 두 부분으로 나뉜 선분 하나를 생각해 보세. 그 두 부분을 각각 ‘눈에 보이는 부류’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라 부르기로 하고, 이 두 부분을 다시 같은 비율로 나누어 보게나. 그렇게 하면 그것들의 명확성과 불명확성의 정도에 따라 ‘눈에 보이는 부류’ 안에서 다시 나뉜 한 부분으로 영상(映像)이 자네에게 주어질 걸세. 이때 내가 말하는 영상이란 그림자, 물에 비친 상(像), 거울의 표면에 이루어진 상 같은 것일세.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류’ 안에서 나뉜 나머지 한 부분은 이 영상이 담고 있는 실제의 것, 즉 우리 주변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공적인 일체의 것으로 간주하세.”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애초의 두 부분이 진리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나뉘었고, 이때 ‘담은 것’과 ‘담음의 대상’의 관계는 ‘의견의 대상’과 ‘인식의 대상’의 관계와 같다고 말하고 싶겠지?”

“그리고 싶고 말고요.”

“㉠ 그러면 이번에는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건 이런 식으로일세. 이 부류의 한 부분에서는 혼(魂, psyche)이 앞서 ‘담음의 대상’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담은 것’으로 다루어, 가정에서 원리(arche)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론으로 나아가는 식으로 탐구하게 되네. 반면에 나머지 한 부분에서는 ‘무가정(無假定)의 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가정에서 나아가 앞부분의 ‘담은 것’도 거치지 않고 이데아를 이용하여 탐구를 진행한다는 말이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 다시 말해 봅세. 나는 자네가 이룰때면 이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네. 즉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홀수와 짝수, 도형 같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말일세.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들로서 자기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어떠한 설명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이지.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나머지 것들을 거쳐서는, 애초에 탐구를 시작한 목표에 이르러 모순되지 않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도 말일세.”

“물론 그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이것도 알고 있을 걸세. 즉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도형을 이용하여 논의를 하지만, 그들이 정작 생각하는 것은 이런 도형이 아니라 그것이 담아 보이는 원래의 것에 관해서이고,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정사각형 자체나 대각선 자체 때문이지 결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일세. 그러나 이것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에 속하긴 하지만 이때 혼은 불가피하게 가정을 이용하게 되고 원리로는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는 혼이 가정에서 벗어나 더 높이 오를 수가 없기 때문이라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의 나머지 한 부분은 이성(logos) 자체가 변증술적 논변의 힘에 의해 파악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때의 이성은 가정을 원리로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기반(基盤, hypothesis)으로 대할 뿐이라네. 다시 말해서

‘무가정의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원리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나 출발점으로 대할 뿐이라는 말일세. 이때 이성은 그 어떤 감각적인 것도 이용하지 않고 이데아만을 이용하며 또 이데아에서 끝을 맺게 마련이지.”

“이해는 하겠습니까만, 충분히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기하학이나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지적 상태를 ‘추론적 사고’라 일컫지 ‘직관’이라 일컫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네는 내 말뜻을 아주 충분히 납득했네. 그러면 넷으로 나뉜 각 부분에 대응하여 혼 안에서 다음 네 가지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세나. 말하자면 최상위의 것에 대해서는 ‘직관(noesis)’을, 둘째 것에 대해서는 ‘추론적 사고(dianoia)’를, 셋째 것에 대해서는 ‘확신(pistis)’을, 그리고 가장 하위의 것에 대해서는 ‘상상(eikasia)’을 배당하세. 그리고 이것들을, 그 대상들이 진리에 관여하는 만큼 명확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비례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하세.”

- 플라톤, 국가 -

11. 위 글로 미루어 <보기>에서 올바른 진술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호수에 비친 달은 ‘상상’의 대상이다.
- ㄴ. 내가 앉아 있는 의자는 ‘확신’의 대상이다.
- ㄷ. 열매 속의 씨앗은 ‘추론적 사고’의 대상이다.
- ㄹ. 칠판에 그려진 직선은 ‘직관’의 대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2. 위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선분’이 나뉘는 기준은 명확성 혹은 진리에 관여하는 정도이다.
- ② 존재하는 것들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누는 이면에는 가치의 서열이 개재되어 있다.
- ③ 존재하는 것들의 단계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일대일 대응 관계에 있다.
- ④ 기하학이나 산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어떤 감각적인 것도 이용하지 않고 도형이나 수 자체를 누구나 안다고 가정하고서 탐구한다.
- ⑤ ‘눈에 보이는 부류’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에 대해 갖는 관계는, ‘의견의 대상’이 ‘인식의 대상’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

13. ㉠에 대한 대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추론적 사고’와 ‘직관’이 갈리는 지점에서 나뉜다.
- ② 이데아만을 이용하여 탐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나뉜다.
- ③ 변증술적 논변의 힘에 의해 파악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구별하여 나뉜다.
- ④ 눈에 보이는 도형을 탐구하느냐, 이 도형이 담아 보이는 사물을 탐구하느냐를 기준으로 나뉜다.
- ⑤ 가정에서 출발하여 결론으로 나아가는 부분과 가정에서 출발하여 ‘무가정의 것’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구별하여 나뉜다.